

◆머느리권씨 열전 6

조선의 8대 명당 권씨부인의 묘(권대훈權大勳의 딸,시중공파24世,청풍김씨 인백의 처)



‘중 이조판서 김인백 처 정부인 안동권씨지묘’ 즉 남편과 합장이 아니고 단독 무덤이다. (사진: 네이버)

권씨 머느리로 시집의 무덤에 묻히는 것은 당연하나 그 아들이 명당을 잡아서 먼저 어머니를 권씨를 안장한다. 그녀의 남편 김인백의 묘는 건너편 산록에 있고 정자 명당과는 거리가 멀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다니 이 또한 드른 경우가 할 수 있다. 이 집안의 발복은 머느리 권씨의 무덤에서부터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 행적은 알려진바 없으나 청풍김씨에게 시집와서 아들을 훌륭히 키우고 그 아래 3대에 걸쳐 사대육상(4代에 宰相 6명)의 진기록을 세우니 이는 안동권씨의 '당대9봉군'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이번 머느리열전에서에는 진정한 명당의 의미를 새겨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조선 8대 명당

명당(明堂)이란 사람이 사는 양택(陽宅)과 죽은 이가 묻힌 음택(陰宅)의 길지(吉地)를 말하지만 이제 화장(火葬)이 대세인 시대에 묘지의 길흥을 따지는 음택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본다. 한반도의 인구가 200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이내에서 이천년에 내려왔는데 지금 옛처럼 무덤을 만든다면 10년 내에 전국의 산이 모두 묘지가 될 것이다. 심지어 가족 납골당도 공해인 시대이니 말이다. 사는 집의 길지를 의미하는 양택명당은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이나 아파트가 대부분인 시대이니 이 또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 도리어 실내의 기물 배치가 명당을 좌우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책상, 컴퓨터, 침대의 배치가 심신의 건강에 주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 묘소는 경기 의왕시 고천동 171에 위치한 이른바 ‘회룡고조형 명당’이고 의왕시청 바로 옆이어서 방문은 쉬우나 매우 면적이 넓고 입구에 펜스가있으니(청풍김씨판서공(휘인백)파종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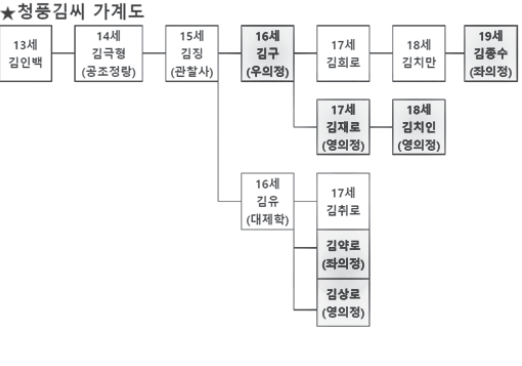
그럼 풍수가들이 말하는 조선의 명당은 어디인가? 보통 8대, 10대, 20대 명당이라 하는데 5대 까지는 대략 일치하지만 나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명당의 의미도 실제 좌청룡 우백호등의 이론적인 관점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 후손의 발복한 정도에 따라 설명하고 옛날은 그 잘된다는 것이 관직의 높이에 의거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

로 인한 화(禍)를 당하지 않은 정도도 고려되고 결국 명당이란 덕을 쌓은 정도에 비례하여 인구(人口)에 화자(膾炙)된 빈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朝鮮八大明堂은 다음과 같다. (01) 청풍김씨 김인백 妻 안동권씨 墓: 경기 의왕시 고천동 171, 회룡고조형 명당 (02) 안동김씨 김번(繁) 墓: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산 5, 옥호저수형 명당 (03) 평산신씨 시조 신송겸 墓: 강원 춘천 서면 방동리 816- 1, 장군대좌형 명당 (04) 광산김씨 김극뉴 墓: 전북 순창 인계면 마흘리 547, 대마미울, 말 명당터 (05) 동래정씨 정사(賜) 墓: 경북 예천 지보면 도장리 산38, 옥녀축와형 명당 이상 여기 까지는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데,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다음 중에서 풍수가의 의견에 따라 들쭉 날쭉 하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안동김씨 김상헌 부모 墓: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산5, 옥호저수형 명당. (2) 파평윤씨 윤관장군 墓: 경기 파주 광탄면 분수리 산4- 1 (3) 달성서씨 서성(省) 墓: 경기 포천 설운동산1- 14 (4) 청주한씨 시조 한란(蘭) 墓: 충북 청원 남일면 가산리 537, 화룡고조형 명당 (5) 진성이씨 이정(楨) 墓: 경북 안동 북후면 물한리 96- 1, 작산마을, (퇴계선생 증조부) (6) 광주이씨 시조 이당(唐) 墓: 경북 영천 북안면 도유리 120- 2, 허화혈(虛花穴) (7) 고령신씨 시조 신성용 墓: 경남 고령 쌍림면 산주리, 만대산 백호배주형 명당. (8) 동래정씨 2세 정문도 墓: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67, 화지산 야(也)자형 명당 (9) 반남박씨 시조 박응주 墓: 전남 나주 반남 흥덕리, 별 명당터 (10)청주한씨 한광윤 墓: 전남 영광 범성면 신장리 746, 오봉마을: 4대승상, 7대왕비 백자전손 문무대대로 날 명당, 용사취회형(龍蛇聚會).

청풍김씨

김인백(1561~1617년,광해군 9)은 조선 중기 유학자, 자는 군수(君壽),증조부는 정주목사(定州牧使) 김우증(金友曾)이고, 조부는 대호군(大護軍) 김여광(金汝光)이다. 부친 김계(金繼)와 모친 사직(司直) 안광옥(安光沃)의 딸 순흥안씨(順興安氏) 사이에서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형은 증참의(贈參議) 김충백(金忠伯), 효성이 뛰어났고 우애가 돈독하며 기골이 강대하여 키가 8척이나 되었다. 용모에 위엄이 있고 몸가짐이 장중하였다. 또 결단력이 있었으며 사욕이 없었다고 한다. 승지(承旨) 신응구(申應渠)·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등과 친하게



교유하였다.

부친은 학문과 덕행으로 명망이 높았던 유학자였고, 형은 효행으로 명성이 높았던 가풍(家風)을 전작시켜 윤리를 바로잡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데 힘썼다. 후손들이 귀해져서 이조판서(史曹判書)에 증작되었다.

슬하에 3남을 두었는데, 김익려(金益礪)·김극부(金克孚)·정랑(正郎) 김극형(金克亨)이다. 이후 4대 6상(四代六相)의 발복을 가져오니 후손 4대 안에 정승(총리급)이 여섯명이나 나왔다. 이것이 그의 부인 권대훈(權大勳, 시중공파 23세)의 딸 권씨의 묘가 ‘조선8대 명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풍 김씨(淸風 金氏)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을 본관을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신라 제 56대 경순왕의 넷째아들 김경구의 17세손 김대유가 경주김씨에서 분파하였다. 김대유(金大猷)는 신라 대보공(大輔公) 시조 김알지(金閼智)의 후예인 장군(將軍) 김순웅(金順雄)의 12세손으로 고려 말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져,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하고 관향(貫鄕)을 청풍(淸風)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조선조(朝鮮朝)에서 장원 급제자 10명(김길룡,김식,김육,김시번,김석주,김구,김치후,김치인,김광묵,김동원), 상신(相臣: 영의정·좌의정·우의정) 8명(김구,김재로,김치인,김약로,김상로,김중수/김육,김석주), 대제학(大提學) 3명(김유,김중수,김윤식), 왕비(王妃) 2명(현종비 명성왕후,정조비 효의왕후), 종묘배향공신을 4명(김우명,김석주,김좌병,김재로), 호당1명(김문하),청백리1명(김신유)을 배출하였다. 인구는 11만명으로 대성은 아니지만 문과 급제자 103명을 포함 총 급제자는 367명이나 된다.

명당인 권씨 묘

이 묘에도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이 자리는 부자인 석(石)씨네 집터였다고 한다. 어느 날 천문지리에 밝은 도승(道僧) 두 사람이 팔도 유람을 하다가 이 곳을 보고 “천하대지로구나”하며 감탄하고는 명당학인 지표문인 솔잎을 마루 밑에 땅을 파고 묻어 두었다. 이때 김인백의 3남 김극형(金克亨)이 이를 알고 일년 뒤 이 도승보다 일찍 와서 파보니 솔잎이

황금빛으로 변해 있으니 슬쩍 썩은 솔잎으로 바꾼다. 일년 뒤 도승이 와서 파보니 썩은 솔잎이니 고개를 가우뚱하며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큰 불이 났다. 그러자 썩여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김극형은 석 부자를 설득하여 집터를 매입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안동 권씨가 돌아가시자 이곳에 장사지냈다. 그 뒤 발복이 시작되었다. 본인은 정5품인 공조정랑(과기부 인사국장)이 되었다. 아들 김징(金澄)은 전라관찰사, 손자 김구(金構)는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형조·호조·예조·병조·공조·이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한 후 우의정, 차남 김유는 대제학,김구의 아들 김재로(金在魯)는 영조 때 영의정만 4차례 역임, 그의 아들 김치인(金致仁)은 정조 때 영의정이나 김구-김재로-김치인 등 3대가 정승을 지냈다. 한편 김유의 장남 김약로(金若魯)는 영조 때 좌의정, 차남 김상로(金尙魯)는 영조 때 영의정을 하였다. 김희로의 손자 김조수는 정조 때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이처럼 4대에 걸쳐 6명의 정승을 냈으니 이 집안을 4대6상(四代六相)이라고 부른다. 이후로도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근대의 인물로는 김윤식과 김규식이 있다.

이 묘의 주산은 오봉산(210m)이고 속리산에서부터 김포 문수산까지 이어지는 한남정맥 상에 있다. 광교산(582m)과 백운산(566m)을 거쳐 지지대고개를 지난 다음 일으킨 산이다. 한남정맥 상에 있는 산인만큼 비슷한 높이의 다른 산에 비해 기가 세다고 할 수 있다. 오봉이란 이름은 봉우리가 다섯 개라 하여 붙여졌다. 봉우리를 모두 귀인으로 보았다. 본래 5명의 정승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6명이 나와서 의아했다고 한다. 겨울철에 보니 낮은 봉우리가 하나 더 있어서 6정승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이 묘소를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이라 하는 것은 조산(祖山)을 바라보는 좌향의 터를 말한다. 이곳은 조산의 옥맥이 주산이나 현무봉을 이룬 곳을 의지한 곳일 때, 할아버지가 손자의 응석을 아무를 대가없이 받아 주듯이 동기감응을 이룰 수 있는 임지를 말한다. 가령 마주보이는 조산 봉우리가 문필봉을 이루고 있다면, 고명한 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를 받는 곳이다. 금형체는 거부(거)의 기를, 토형체는 높은 관직과 명예를, 화형체는 예술인의 지기를 받을 수 있는 임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권씨 부인의보

그러면 김인백의 처 안동권씨의 묘부터 4대6상의 발복을 하였다면 이들을 낳은 권대훈의 딸 권씨의 계보를 알아보자. 권씨부인의 부친 권대훈은 면장급이고 그녀의 동기인 권곤은 군수에 대통령비서실 수석급이다. 조부는 군수, 증조부는 감사원 장,고 조부는 청와대 비서실장장급 등등 주로 중간급 이상의 벼슬과 벼슬을 거부한 은둔자가 많고 과거 급제로 볼 때 두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유전자를 가졌다 고 본다. 수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장수한 70대가 더러 눈에 띈다. 그녀의 동기인 24世 권곤으로 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체적인 유전자의 이력을 살펴보자.

24世 권곤(權鵬,여산군수, 동충추부사, 대통령비서실수석급),김인백의 처남

23世 권대훈(權大勳, 진위현감, 경기도진위면장급,贈이조판서)

22世 권용(權鎰,청송부사, 청송군수급)

21世 권만형(權蔓衡, 사헌부감찰, 감사원과장급, 증贈통례원좌통례, 외교부의전과장)

20世 권감(權堦, 가신대부화천군, 정난공신·도승지, 대동령비서실장)

19世 권극화(權克和, 장원공제, 예조정랑-외무부인사과장급, 중추원부사)

18世 권삼(權參, 사간원우사간, 감사원차장급, 세종조73세후)

17世 권홍(權興, 봉익대부 전공판서, 과기부장관급)

16世 권진(權賑, 贈광정대부 도첨의, 국무총리실 국장급)

15世 권승길(權承吉, 상호군, 검교상정군·군사령관급)

14世 권합경(權合經, 예의판서·외교장관급, 증贈호조상서, 재무장관급)

13世 권시저(權時著, 장사랑, 9급공무원)

12世 권협중(權協中, 삼은거사, 벼슬거부한 장자, 충열왕조)

11世 권화평(權化平, 총영, 은군자, 벼슬버림)

10世 권인가(權仁可, 시중공, 시중공파조, 내급사, 7급주사급, 문하시중 명칭은 불신)

09世 권융(權融, 성화보누락)

08世 권이여(權利興, 호장, 지방호족장)

07世 권엄(權廉, 호장동정, 지방군단위과장급)

06世 권선거(權先蓋, 호장동정, 교위, 지방군단위과장급)

05世 권자평(權子彭, 호장정조, 지방군단위과장급)

04世 권균한(權均漢, 우일품별장, 예비군소대장급)

03世 권척(權冊, 호장정조, 고려조의 말단직이나 당시는 지방호족)

02世 권인형(權仁幸, 낭중공,지방호족)

01世 권행(權廉, 태사공, 시조)

이렇듯 권씨 머느리가 명당에 묻혀서 후손이 발복하였다고는 하지만 20대 명당 안에 전주이씨(황제2명 배출의 남연군묘소) 등 소위 잘나가던 성씨는 없는 것도 많다. 묘지리를 잘 찾다가 보다도 후손이 잘되면 명당이 되는 것이다.

근래에 천마산 자락에 후손을 잘못 만나 재상이면서 비석이 두동강나 숨겨지고 팔려나간 묘터도 있고 영의정이지만 재개발로 작은 대토(代土)를 받고 검은 돌 하나로 남은 묘지도 있고 비록 유인(儒人)이지만 고양시 산기슭에 초라하게 있다가 재개발이 되니 후손이 보상금을 몽땅 쏟아부어서 정승보다 더 크게 만든 봉분과 비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어느 것이 뭐가 좋은지는 모르나 후손이 잘된다는 것도 기준이 된지는 모르나 미래를 위한 마음 씀씀이를 남기고 사라진다면 그것이 곧 발복이다.

주역 문언전에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적악지가 필유여殃(積惡之家 必有餘殃)’라는 말이 나온다. 선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찾아온다는 것과 악업을 쌓으면 경사가 찾아온다는 것이다.이것은 선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지게 하여 ‘할아버지 음덕이 손자 대에 열매 맺는다’라는 옛 선인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연결 고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명당(明堂)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비록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의왕시 권씨 할머니의 묘소를 거닐며 그들이 남긴 진정한 명당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글 권오철 기자

◆수필 | 제1회 담쟁이문학상 수상작

신新 열하일기를 읽고

권해조

특히 저자들은 연암일기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고구려의 대당항쟁의 현장인 안시성安市城과, 강홍립의 조선군이 패전한 부찰富察지역까지 답사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답사하면서 저자들은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던 만주지역을 잃고 한반도로 축소된 우리 역사의 아픔과 함께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안시성 옛터에서 역사의 허망함을 느꼈다. 그리고 강대국인 명명과 청淸의 틈바구니에서 참전의 이유도 모른 채 죽어 아 했던 강홍립의 조선군이 패전한 부찰지역에서 약소국의 설움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동안 몰랐던 “열하일기”의 내용과 연암의 사상, 중국의 역사와 오늘날의 한중관계를 재조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라는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일반 인식과는 달리 연암은 청나라로부터 배워야할 것이 많다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조선 후기 북학파이다. 백성들에게 이롭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법이 오랑캐에서 나왔더라도 본받아야 한다는, 즉 이용후생利用厚生이 연암을 위시한 북학파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심양에서 명망청흥 明亡淸興의 서막인 살이호薩爾滸전투, 심양전투와 후금後金과 청淸 건국에 관한 상세한 역사기록이 돋보였다. 그밖에 저자 윤일형의 호산장성 虎山長城에서, 김중운의 요하를 건너 신민新民의 밤, 효종의 청석가靑石歌, 연암의 요동별관을 새벽에 지나며(연암집 4권) 등의 시詩를 음미하면서 역사기행을 실감나게 하였다.

저자들은 여행을 끝내면서 몇 가지를 피력하



였다. 첫째는 중국은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공안 公安의 나라’로 공안에 의해 파악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소지품 검사와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구호와 표어의 나

라’로 어디서나 수많은 구호와 표어를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나라로서 체제선전을 통해 사상통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암이 살았던 조선은 정치적 문화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의 모순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천자의 나라’인 중국을 변방국인 조선이 받아들이야 했고, 문화적으로도 청나라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오랑캐나 뽕놈으로 멸시했다.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강대국인 청을 무시하고 심리적으로 명을 지지하다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자초하였다. 오늘날에도 한국과 중국은 정치와 경제면에서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우리 민족의 신명과 잠재력을 일깨워 새로운 역사적 기적과 신화를 창조하자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50대 후반에서 70대의 중노인으로 구성된 저자들이 7월 한여름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전거로 장장 1,5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그 열정과 체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저자들의 남다른 노고를 치하하며 이 책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길 기대해본다.



8월 6일 고양시 한중교류센터에서 열린 추대식 후 기념사진을 찍은 박정아 미스월드·유니버스코리아조직위원장(왼쪽)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미스월드·유니버스코리아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정아)가 지난 8월 6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을 2021 미스월드·미스유니버스코리아 대회 국제조직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권 회장은 오는 9월 26일 개최되는 미스월드로코리아 대회와 10월 11일 열리는 미스유니버스코리아 대회의 국제 협력업무를 총괄지원하기로 했다.

두 미인대회는 올 연말 개최되는 미스월드 세계대회와 미스유니버스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를 선발하게 된다. 권기식 회장은 “세계적인 미인대회의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를 지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미인대회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